



불기[2565(2021). 10. 19 (화)]

뉴스 대중공사 수행&신행 문화 기획&연재 불교신문TV 25교구 뉴스 더보기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어깨...함께 짊어짐에

공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16 13:31 | ☎ 호수 3688 | 💬 댓글 0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시멘트 턱에 걸터 앉아 잠시 쉬고 있다. 비를 피할 길 없는 길 한가운데,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밀양 산외면의 새벽,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 어깨 위로 비가 내린다. 새벽 행선 후 잠시 쉬어가는 시간조차 편치만은 않은 생활. 지붕 하나 가림막 하나 없는 진흙탕 길바닥 위, 시멘트 턱에 걸터앉아 온 몸으로 고스란히 비에 젖어드는 회주 자승스님의 어깨가 가볍지 않은 않다. 순례단 150여 명의 시선이 회주 스님을 향해 있다.

종단사 최초로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며 조계종단 정점을 찍은 자승스님이지만 이 길 위에선 ‘한 사람의 순례자’와 다를 바 없다. 불빛 하나 없이 적막한 어둠 속 오롯이 혼자다. 회주 스님을 따르는 순례단도 끊임 없는 번뇌와 망상 속 100여 시간 쌓여온 피로와 부상에 시달릴 터. 그럼에도 힘든 기색을 비추지 않고 또 다시 한 발 앞을 내딛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인 10월16일, 송광사 해인사를 거쳐 351km를 걸어온 순례단이 악조건 속 표충사에 이르렀다. 오전 내 이어진 가랑비와 살갓을 파고든 추위에도 한 발 한 발 내딛어 24km를 걸었다. 금천리와 단장리를 넘어 오는 내 인도와 차도, 농로 등 구별 없는 길을 지났다. 비가 오고 몸이 젖어도, 휘어지고 구부러진 길이 나타나도 온전히 길에 몸을 맡겼다.

5시간의 행선 끝 도착한 표충사는 경남 밀양 재약산에 위치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충훈이 깃들여 있는 호국 성지다. 본래 절 주변에 대나무가 많아 죽림사라 지었지만 경내에 사명대사를 기리는 사당 표충사와 표충서원을 옮겨오며 표충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절 안에 사당과 사원을 품고 있어 불교와 유교가 한 데 어우러진 형국으로 불교는 물론 유교까지 품고 가고자 했던 사명대사의 넓은 뜻이 담겼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이들의 정체는? Clas...

포토뉴스



색선별 최신기사

불교신문TV

"SNS어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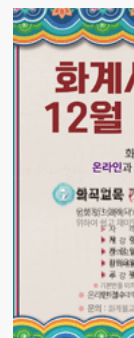


짜장

짜장에 진심인 사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불교계 매도 ?
- 10 관중 없는 비디



최신뉴스

- 참선지도사 명상지!
- 조계종 문화부장 성
- 제2회 윤강명상학술
- 병원진료에 함께 갈
- 파라미터 전통동 공
- 짜장에 진심인 사람
- 어르신들의 서울사!
- 주민이 주도하는 '동
- 김천다문화가족지원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대사는 수행자의 삶을 꿈꿨지만 국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를 불렀다. 그럴 때마다 사명대사는 고뇌 속에서 기꺼이 그 큰 짐을 어깨에 올렸다. 순례의 끝자락,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막바지 일정을 회향하기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16일 출발 전 일일참가자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비 내리는 새벽 길을 걷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종단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 국회 앞 1인 ...
전국 해인총림 해인사, 개산 1219주년 역대조...
사회&국제 불교활동가지원기금 '제18회 불교...
인물 "부처님 가피로 30년 포교 가능했죠"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줄...
수행&신행 참선지도사 명상지도사 자격시험 ...
문화 조선왕조실록이 돌아올 때까지...
기획&연재 관중 없는 비대면이지만 생명나눔 ...
출판&문학 지율스님 태아영가 천도재 30년 ...
학술&문화재 제2회 윤강명상학술상 이영진...
복지&상담 병원진료에 함께 갈 '시니어 돌봄...



법공양 (기획PR)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108염주를 들고 행선하고 있다.



구미 마하이주민주민지원센터 등 이주민들이 순례단을 응원하러 먼 길을 나왔다.



표충사에 들어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회주 자승스님이 환영 속 표충사로 들어서고 있다.



표충사당에 헌다하는 회주 자승스님과 1조 순례단원들, 회주 자승스님 양 옆으로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사진 오른쪽)과 전 주지 원산스님이 보인다.



대광전을 참배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빗 속 장시간 정진에도 순례단은 ‘표충사당’부터 찾았다. 사명대사 정신을 기리며 헌다 한 후 대광전으로 이동, 참배하고 불전했다. 불자로서의 기본,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발원 중 하나인 ‘삼보에 대한 예경’을 지키기 위함이다.

순례가 막바지 이르면서 통도사 본말사 대중도 일찍이 순례단을 맞았다. 표충사 입구에서부터 순례단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축하 공연이 열렸으며 대광전 앞 회향식 때는 경내 마당이 가득 찰 정도로 환영 인파가 몰렸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과 전 주지 원산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본말사 스님들이 걸음했으며, 포교원장 범해스님과 포교원 실국장 스님은 이날 전 구간 걷기에 참여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민병덕 동국대 이사 등 재가 불자도 상당수 자리했다. 순례단원 중 한 명인 진오스님이 이끄는 구미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이주민들도 순례길 마다 응원을 나왔다.

불보종찰 통도사를 향해 걷는 막바지 순례, 걷는 내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도 순례단 얼굴엔 설핏 웃음이 들었다. 새벽부터 비를 맞으며 걸었을 순례단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교 체육관을 빌려준 김웅 홍제중학교장, 추위에 떠는 순례단에 따뜻한 보이차를 대접한 옥연화 보살 등 표충사를 오는 내 경남 곳곳마다 만난 따뜻한 마음 때문일까.

순례단 마음이라도 읽은 것처럼 옥연화 보살은 “큰 스님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재가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곁 곳곳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존경의 마음이 솟아 난다”며 “이 이상의 불교 중흥, 포교가 따로 없다”고 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이 순례단을 위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이틀에 이어 또 다시 비가 내렸다. 빗 속을 걷는 순례단.



표충사 입구 이날 순례의 마지막 휴식장소에서 따뜻한 커피를 받고 환하게 미소짓고 있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



아침 예불 안전팀의 모습.



홍제 중학교 체육관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있는 순례단.



홍제중학교를 나서는 순례단.



표충사 경내에 순례단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회주 자승스님의 두 발.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두 엄지발톱에 문제가 생겼다.



16일 오후 2시부터 표충사에서는 전통호국음악공연이 펼쳐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모습.



음악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의정부시립무용단과 봉은국악합주단의 복의향연.



16일 차 저녁 조별 자차가 있었다. 1조 모습.



밀양=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 긴장 속 호국성지 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교 공세'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가 부처..."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금강계...
-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3일차]...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① 달라지고 있는 포...
-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① 송광...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떨과 평생 한번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비 넘어...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산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